

푸짐한 우리 식성 빼닮은 잡지디자인

한정된 표지에 넘치는 메시지들... 고유문화에서 시각적 미학 찾아야

정진국

미술평론가

책자의 재질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디자이너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종이와 판형과 잉크와 활자 등의 조건은 원하는 결과를 낳기에 한참 멀다. 색분해와 인쇄와 제본 등 실제 제작과정에서 고품질의 숨씨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 디자이너라는 설계도면은 부실 공사업자에게 넘겨지는 도면처럼 심하게 훼손되게 마련이다. 또 디자인 고객들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불만 소리도 들린다. 주문주의 의도에 맞추어야 하겠지만, 창작가로서 디자이너의 안목과 시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발행인이 독자의 취향을 해석하는 시각에는 늘 일정한 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보는 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마찰의 원인이다.

'책의 맵씨'에 관한 어긋난 견해

최종 소비자인 독자를 앞에 두고서 주문하는 사람과 디자인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익명의 독자층의 기호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연령과 성별, 학력과 소득 수준에 맞추어 계산된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책의 맵씨에 대한 견해에서는 언제나 어긋나게 마련이다.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면서 교양을 쌓아온 발행인과 미학의 원리를 익히면서 실력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을 디자이너 사이, 이 두 원칙론자들의 갈등은 사실 쉽게 풀리기 어렵다. 결국 합의와 양보가 없다면,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되기 쉽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양자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책의 모양새와 디자인을 마지못해 절충적인 것, 어정쩡하고 뒤죽박죽이며 요란한 것으로 만들기 쉽다. 즉 오늘의 책들이 그려내고 있는 풍경이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책 안 읽기로 유명한 이 사회에서 독자의 양과 질이 성큼 높아지기 전에는 눈길을 끌기 위한 안간힘과 유혹의 전략, 표지에 온갖 정보와 갖가지 성격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용물에 대한 권위와 확신에서 있지 않은 마당에,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바깥의 치장에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팎'을 지닌 것

우리의 정기간행물들은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고 먹는

우리의 식성을 빼닮았다.

로고타입은 한문체, 제호는 알파벳의

한글표기, 글줄기는 고딕체에

소재목은 신명조다.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급증이

표지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의 고유한 활자체들의 품위와

멋을 찾기는 정말 힘든 걸까.

들의 운명 아니던가?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영상문화에 주눅이 든 오늘날의 활자문화는 '읽는 것' 보다는 '보는 것'의 중요성에 화들짝 놀라 이제 읽히는 것의 본령조차 잊어가고 있지나 않은 것인지 염려스러울 정도이다. 북 디자인이라고 하면 무언가 영상 이미지의 짜릿함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 말이다. '자태' 대신에 '교태'를 선호하고, 비정상적이고 상례를 벗어난 것만이 화끈한 '정보'로서 진가를 발휘하는 시대에 당연한 신앙이다.

요란한 서체와 색채, 그래픽들

수많은 서체와 색채와 그래픽을 동원해서 표지가 요란해질수록, 이른바 '미다시'들이 줄줄이 알록달록한 리본들처럼 책을 포장할수록 그 내용에 대한 의구심은 상대적으로 더 깊어질지도 모를 정도로 소비자들은 늘 의심 많고 까다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나 않은 것인지.

사실 달리 보면 우리의 정기간행물들은(주로 주간이나 월간, 그리고 전문적 계간지)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고 먹는 우리의 식성을 빼닮았다고 할 수 있다.

발행사의 로고타입은 의외적인 한문체이고, 제호는 알파벳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며, 글줄기들은 고딕체 한글이요, 소재목들은 신명조이다. 정가는 하늘하늘한 세필체로 부끄러운 듯 숨어있고, 타이틀을 장식하



우리의 잡지는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는 우리의 식성을 빼닮았다.

는 따옴표들은 로마자를 감싸던 부호들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된 첨단적인 이미지의 배경에 구 세대 정치가들의 익숙한 초상 사진들이 미소를 짓거나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어김없는 잔칫상이다.

이런 그릇과 접시들을 다 올려 놓기에 표지의 상다리는 너무 가늘프지는 않던가? 한꺼번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들어오지 않으면 차린 것이 없다는 듯이 섭섭히 느끼는 우리네 정서가 여기에서도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고 할까.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는 우리의 발행인들은 그 미디어의 이름만으로 메시지를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의 편집자들이 지극히 친절하기 때문에 메뉴를 소상히 알리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기 때문일까.

내용을 친절하게 시각적으로 함축해내려는 편집자와 디자이너의 노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만하다.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급증이 표지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새로운 것이 늘 최상의 방책이라는 논지도 읽혀진다.

그러나 영상 문화에 대항해서 활자 문화의 자존심을 지켜려는 수호자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고활자 문화와 근대에 개발되었던 활자체들의 품위와 멋을 찾아보기 어렵다. 상형 문자에서 출발했던 표음 문자에서 시작되었던 간에 문자 자체에 깃든 메시지 전달의 미학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골동품상이나 고물상을 뒤져도 되겠지

만, 고활자 박물관을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돌아본 사람이라면 우리 문자의 놀라운 시각적 표현 가능성에 혀를 내두르게 될 것이다.

우리 문자의 놀라운 표현가능성

그러나 정기간행물들의 모델이 '뉴스'와 '리뷰'와 '저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까. 현대적인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영어로 표기해야 잘 어울리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까. 한글에 바탕을 둔 표지의 짜임새는 이질적인 것들의 짜깁기일 뿐이다.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알파벳에 대해 소아병적인 반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더구나 우리 독자들의 수준을 국수적인 문화의 틀 속에 묶어둘 이유도 없다.

하지만 고유 문화의 뼈대가 튼튼치 못하다면 새로운 이방 문화가 피와 살이 되지는 못한다. 뼈를 삭이는 고름이나 종양이 되기 십상이다. 새삼스러운 이야기조차 못되지만, 문자는 최상의 그래픽 자원이며 가장 설득력 있는 시각적 상징이다. 도상이나 화상의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서체의 개발이다. 왜 다들 듣고 있지 않던가, 고딕체에서 우리의 '리' 받침은 항상 귀퉁처럼 뭉개지곤 한다고. 컴퓨터 서체는 붓글씨 같은 획의 힘이 빠져 감이 샌다고. 또 가독성이나 조형성이야 어찌 됐든 좀 야릇한 서체는 나오기가 무섭게 유행하지 않던가. 서체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다. ❖